

증가하는 여성1인가구, 생애주기별 생활체감형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 중심의 가구변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7년 28.6%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는 2017년 기준 전체 948,030가구 대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7.4%(259,525가구)로 나타났고, 2045년에는 1인가구 비율이 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의 1인가구 성비는 여성1인가구가 53.8%로 남성(46.2%)에 비해 7.6%p 더 많고, 전국 평균(50.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1인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남성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1인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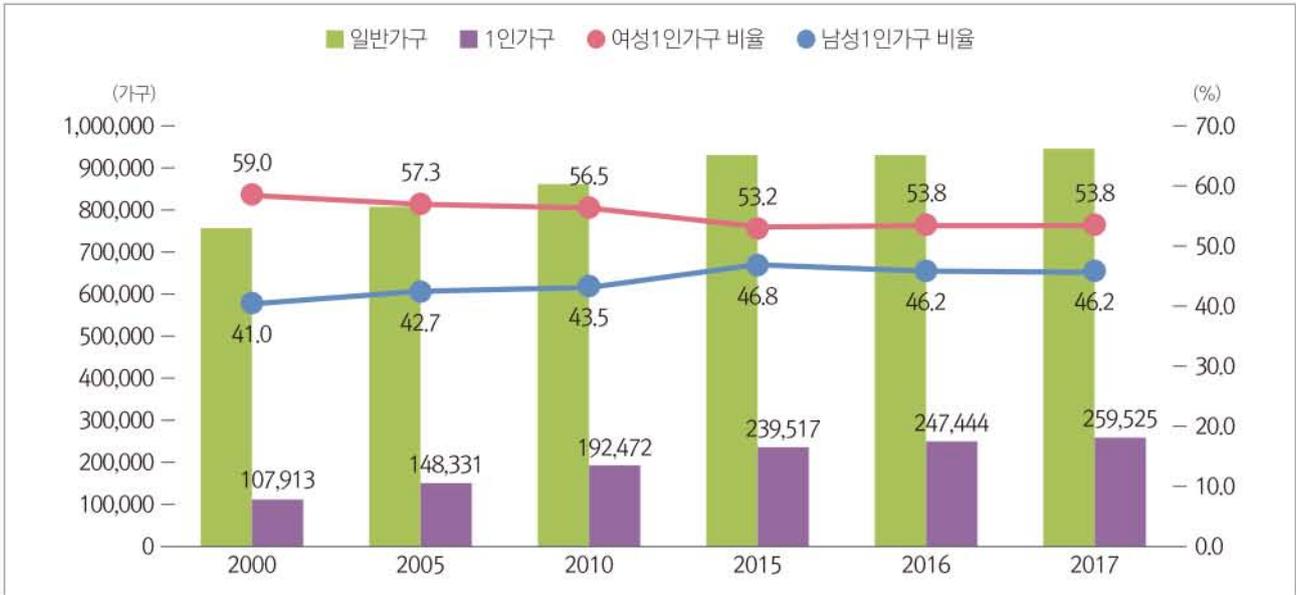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공동체 연대관계의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같은 사회적·공공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가족 관련 정책 수립 시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대단위 가족 중심의 취약계층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1인가구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이나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지역 여성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경제, 주거·안전, 복지(건강·사회참여)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2~30대 여성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4~50대 여성1인가구의 노후준비,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6~80대 여성1인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와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발굴 및 관련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1 대구지역 여성1인가구 현황

-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1인가구 비율이 53.8%로 남성(46.2%)보다 많음
 - 2017년 기준 대구의 1인가구는 259,525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27.4%를 차지함
 - 여성1인가구는 139,608가구(53.8%)로 남성1인가구 119,917가구(46.2%)보다 많음

| 그림 1 | 대구시 일반인구 및 1인가구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60대(19.6%)와 70대(17.6%), 남성은 3~40대(각 20.2%), 50대(20.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성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사별 45.6%, 미혼 29.6%, 이혼 16.9%, 유배우 8.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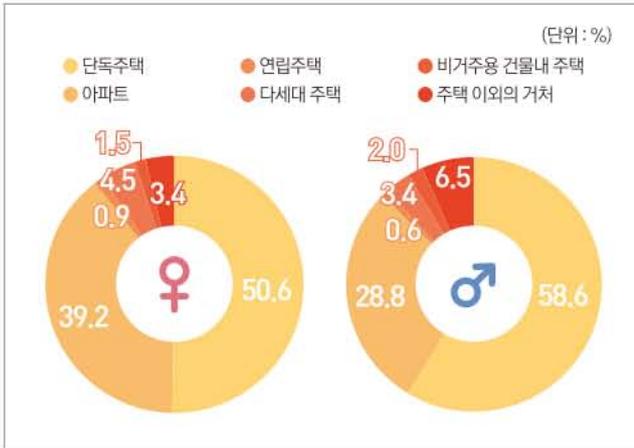
| 그림 2 | 대구시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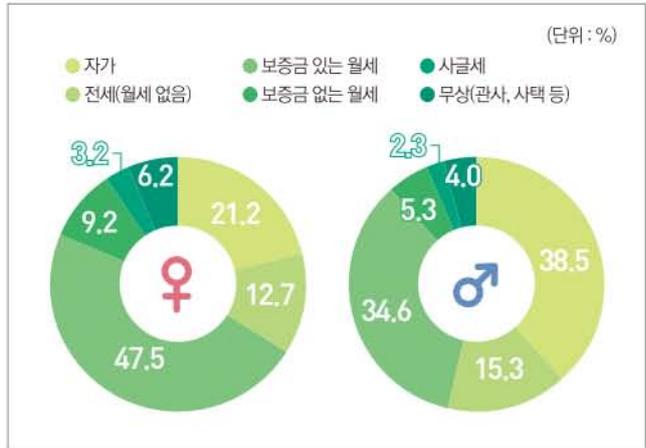
- 여성1인가구의 주거지 형태는 단독주택 50.6%, 아파트 39.2%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는데, 남성에 비해 아파트 주거 비율은 10.4%p 높고, 단독주택 주거 비율은 8%p 낮음
- 점유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47.5%, 자가 21.2%, 전세 12.7% 등의 순으로, 남성에 비해 자가 비율은 17.3%p 낮고, 월세 비율은 12.9%p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음

| 그림 3 | 대구시 1인가구의 주거지 형태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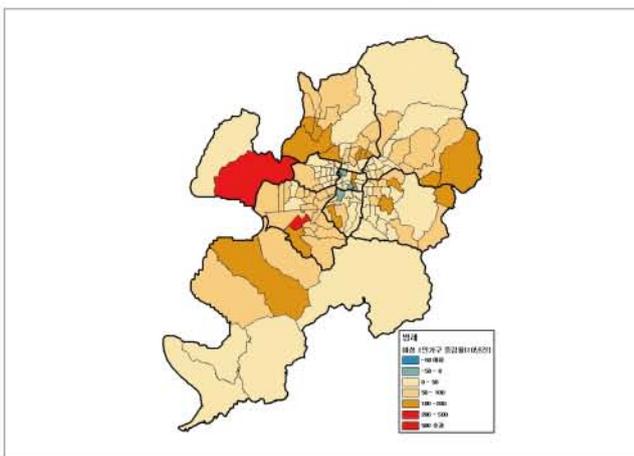
| 그림 4 | 대구시 1인가구의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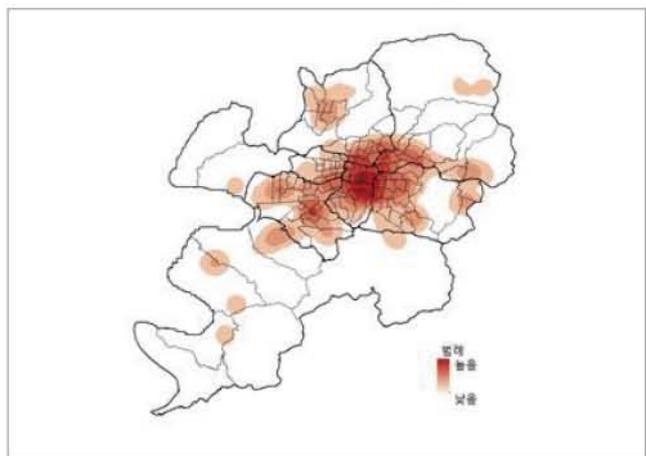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여성1인가구는 대학교가 위치한 신당동, 산격3동 및 주거지역이 다수 위치한 안심1동에 많이 거주하고, 최근 10년간 신도시 주거공간이 위치한 월성1동, 다사읍, 진천동 등의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높음
- 특수의료시설, 교육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복지시설, 공연 및 체육시설 등 여성1인가구 관련 시설은 대다수가 수성구와 중구에 밀집해 있고, 동구와 달성군은 분포가 매우 취약함

| 그림 5 | 대구시 여성1인가구 증감률(2005~2015)



| 그림 6 | 여성1인가구 관련 시설 밀집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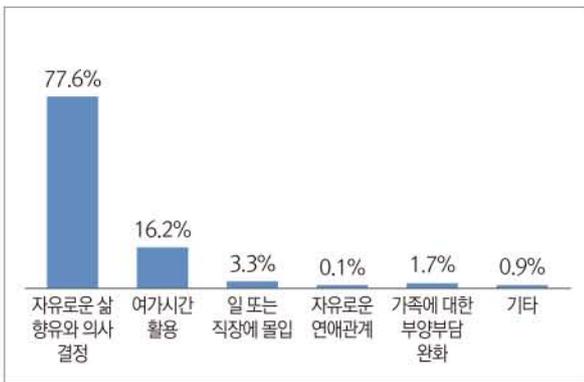


2 대구지역 여성1인가구의 지원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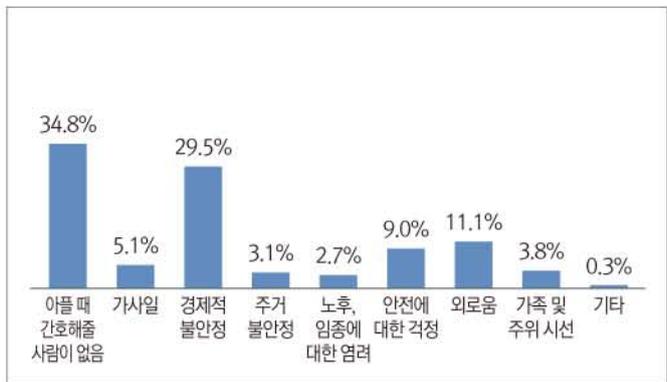
● 자유로운 삶에 만족하지만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 경제적 불안정 높음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조사한 결과, 자유로운 삶 향유와 의사결정이 77.6%로 가장 높고 여가시간 활용 16.2%, 일 또는 직장에 몰입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곤란한 점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4.8%로, 여성1인가구 10명 중 4명이 건강관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에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불안정 29.5%, 외로움 11.1%, 안전에 대한 걱정 9.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림 7 | 혼자 생활 시 가장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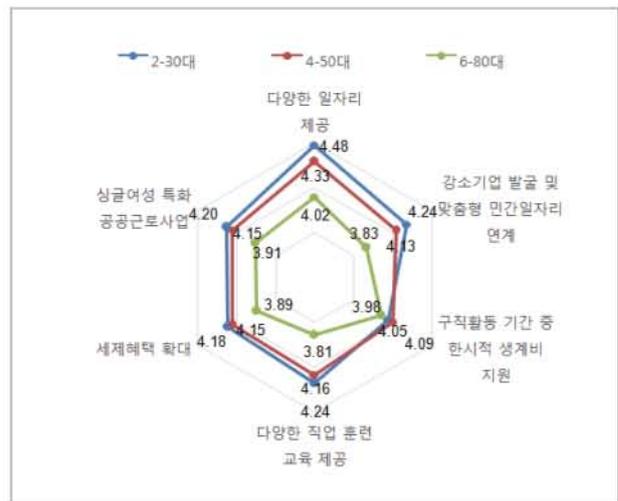


| 그림 8 | 혼자 생활 시 가장 곤란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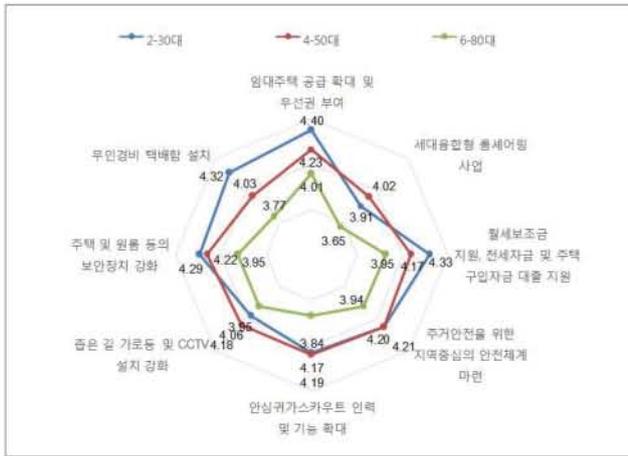
●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제 영역, 주거 및 안전 관련 정책 수요도 높음

-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3.8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은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2~30대(29.3%)와 4~50대(26.7%)는 주거 지원정책, 6~80대(23.3%)는 생활지원 정책을 필요로 함
- 경제 관련 정책으로 여성1인가구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4.27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2~50대는 직업 훈련 교육 제공, 6~80대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4.21점)와 월세보조금·대출지원 및 보안장치 강화(4.15점), 지역중심의 안전체계 마련(4.11점) 순으로 나타남
- 복지 관련 정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시스템(4.36점), 건강지원 체계 마련(4.32점),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4.21점)에 대한수요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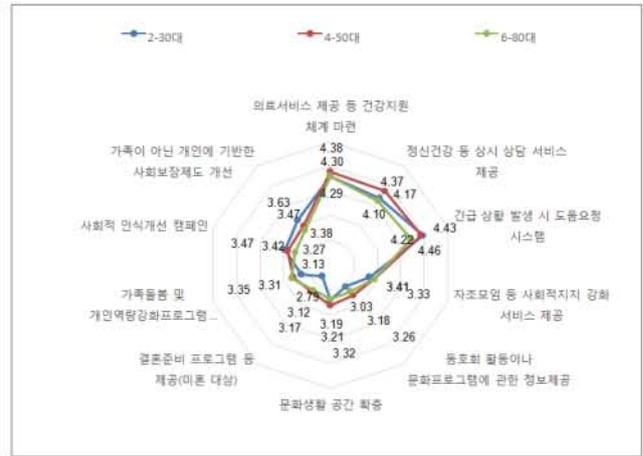


| 그림 9 | 경제 관련 필요 정책

| 그림 10 | 주거·안전 관련 필요 정책



| 그림 11 | 복지 관련 필요 정책



3 대구시 여성1인가구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감형 정책 제언

[2~30대 여성1인가구]

● 2~30대 여성1인가구 대상 주거부담 완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 취업 훈련 및 훈련 기간 생활보조금, 취업 후 지원 프로그램 등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2~30대 여성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학가 주변, 산업단지 인근에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셰어하우스, 공유주택 등의 공유형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안전한 환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조성하고, 보안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홈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360도 CCTV, 112비상버튼 등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택배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킨 스마트무인택배함을 대구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구시에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발한 「안심귀갓길App」과 「안심신고App」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의 대상을 여성1인가구로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음
- 공유부엌 등의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및 요리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용품 대여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4~50대 여성1인가구]

● 4~50대 여성1인가구를 위한 노후준비,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제공

- 경제적으로 취약한 4~50대 여성1인가구를 위해 이직 지원, 전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함
- 노후준비를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안을 계획하여 미래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고령여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의 대상을 건강 취약계층인 1인가구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행정복지 센터를 연계한 1인가구의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함
-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자살예방,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4~50대 여성1인가구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음
- 구·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여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다인가구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1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형 종량제 봉투 도입이 필요함

[6~80대 여성1인가구]

● 6~80대 여성1인가구의 돌봄서비스 강화 및 건강관리 지원

-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노년층 여성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확대하여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주거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여성1인가구가 취약한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누수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주거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선정 시 주거환경에 취약한 여성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기술을 활용하여 상수도 원격검침, TV 셋탑박스 조작신호를 상시 확인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음
- 급식, 재가요양, 생활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노인복지형 주거 유형인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례발굴 및 관련기관의 협업이 요구됨

● 내용문의 ●

대구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김민지

kmj@dwff.or.kr

053. 219. 9924